

濟州地域語의 中和現象에 대한 研究^{*}

金 光 雄^{*}

I

濟州地域語는 他方言群에 비하여 特異한 境界를 이루어 濟州方言群이란 하나의 獨立된 方言群을 形成하고 있다. 이 地域語의 音韻現象과 特殊方言에 이르러서는 古語方言群中에서도 南鮮方言群과는 同一視하기 어려운 獨自性を 維持하고 있으며 共時的으로는 陸地語와 大別되어, 古語·民俗의 寶庫를 形成해 오고 있다.

言語學의 根源的인 研究가 個別言語로서 自然言語라면 國語學의 研究對象은 諸地域語에 대한 研究의 總合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濟州地域語가 갖는 意味는 方言研究의 하나라기보다 國語學의 本領을 研究하는 하나의 過程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地理的 여건 등으로 이 지역어의 研究는 他地域語보다 침체를 거듭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外部로부터의 文化的·社會的 영향, 매스콤과 교육의 발달로 濟州島의 獨特한 言語文化, 自然文化의 환경이 파괴되어 이 地域語에 묻혀 있는 옛모습이 쇠멸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本稿에서는 여러 音韻變動 가운데 그 特徵이 두드러져 여러 方言群에 따라 表面形이 다르게 生成되고 있는 中和現象(Neutralization)을 中心으로 살펴 보려 한다.

이 現象에 대한 音韻論的 機制(phonological mechanism)는 여러 學者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 研究結果의 再論보다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濟州地域語가 가지는 音韻變動現象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 本稿는 文敎部 交流敎授制度에 따른 研究結果 報告書임.

^{*} 人文大學 助敎授

가능한 많은 資料를 提示함은 地理的 여건으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學者들이 그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에서이다.

資料의 수집은 이 地域을 中心으로 60才 以上の 提報者¹⁾를 선정하여 검증을 기하였으며 그 밖의 자료는 金亨奎 「韓國方言研究」, 玄平孝 「濟州方言研究」, 石宙明 「濟州島方言」, 박용후 「제주방언연구」를 참조하였다.

II

音素의 結合에서 音素는 그 制約性을 가진다. 즉 하나의 子音 音素가 그 位置에 따라 制約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자음과 자음의 결합시 音韻 結合의 制約性 때문에 하나의 子音만이 올 수 있는 言語도 있으며 둘 또는 셋의 자음 결합이 허용된 언어도 있으나 이 경우에서도 자음 결합의 제약을 일정하게 받게 된다.

現代 國語의 音節構造의 構成은 CVC, CV, VC, V型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를 갖지 않은 음절 구조는 終聲位置의 제약을 받거나, 자음으로 시작된 形態素 또는 모음으로 시작된 自立形態素의 연결에서도 그 제약을 받는다. 또 국어에서는 語中에 자음이 셋이 연속해서 나오는 음절 구조를 용납하지 않아서 -VCC로 끝나고 뒤의 形態소가 C-로 시작되는 경우 어중에 -CCC-의 子音群이 形成되어 그 制約性을 받게 된다.

이같은 現象을 허 응 교수²⁾는 귀착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우리말의 쪼트머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일곱뿐이다. 그러므로 이 일곱 자음 이외의 다른 자음 또는 자음군으로 끝난 기본형태를 가진 形態소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뒤에 휴식(pause)을 두거나- 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또는 어미가 그에 연결될 때에는 形態소말의 자음 또는 자음군은 이 일곱 자음 중의 어느 하나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서 /p/, /t/, /k/, /m/, /n/, /ŋ/, /l/을 들었다. 나아가 어간말 자음군 단순화 現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① ㅁ → ㅁ
- ② ㄷ → ㄱ, ㄷ
- ③ ㄹ → ㅂ, ㄷ

이병건 교수³⁾는 귀착이라는 音韻現象을 中和現象이라 하여 中和規則(Neutralization)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허 응 교수의 귀착과 거의 大同小異한 것이다.

1) 오창희(70세·서귀포 토평리), 오 정(79세·서귀포 보목리)
오화석(54세·남원읍 남원리), 고영화(71세·서귀포 서호리)
전대성(67세·제주시), 강호명(70세·제주시)
이태홍(53세·제주시)

2) 허응: 「國語音韻學」, 정음사, 1982, pp.243-247.

3) 이병건: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서울, 일지사, 1977, pp.73-75, pp.121-122.

이 中和現象에 대한 先行研究는 이 以外에도 많은 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代表的인 研究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김진우 교수⁴⁾는 자음군 단순화 규칙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提示하였다.

- ① $\left[\begin{array}{l} - \text{grave} \\ + \text{cons} \end{array} \right] \rightarrow \phi / [+ \text{cons}] \text{ --- } \left\{ \begin{array}{l} \# \\ C \end{array} \right\}$
- ② $[+ \text{cons}] \rightarrow \phi / \text{ --- } C \left\{ \begin{array}{l} \# \\ C \end{array} \right\}$

규칙 ①은 두 개의 받침 중에서 뒤의 것이 [-grave]의 資質을 가진 자음일 경우에는 그 자음이 낱말의 끝에서나 다른 자음 앞에서 탈락되는 규칙이며, 규칙 ②는 두 개의 받침 중 뒤의 것이 [+grave]일 때 앞의 받침이 탈락하는 規則이다.

김영기⁵⁾ 교수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규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① $C \rightarrow \phi / [- \text{cont}] \text{ --- } \emptyset$
- ② $l \rightarrow \phi / \text{ --- } [- \text{cont}] \emptyset$ (optional)
- ③ $\left[\begin{array}{l} + \text{cor} \\ - \text{rel} \end{array} \right] \rightarrow \phi / [+ \text{cor}] \text{ --- } \emptyset$
- ④ $P \rightarrow \phi / l \text{ --- } \emptyset$

규칙 ①은 겹자음의 첫자음이 정지음일 때는 두번째 자음이 탈락하며, 규칙 ②는 겹자음의 첫 소리가 /l/이고 둘째 자음이 정지음일 때는 /l/이 탈락(이는 수의규칙임) 함을, 규칙 ③은 규칙 ② 이전에 적용하여 규칙 ②가 적용되지 않도록 출혈(bleeding) 시키자는 것이며, 규칙 ④는 음절 경계 앞에 “래”이 오면 비이 脫落되고 리이 남는다는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혜숙 교수⁶⁾는 다음의 네 가지 규칙을 제의하였다.

- ① (a). $l \rightarrow \phi / \text{ --- } \left[\begin{array}{l} - \text{syll} \\ + \text{cons} \\ - \text{cor} \\ - \text{ant} \\ - \text{cont}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 \text{syll} \\ + \text{cons} \\ + \text{cor} \\ - \text{cont} \end{array} \right] \left\{ \begin{array}{l} C \\ \# \end{array} \right\}$
- (b). $\left[\begin{array}{l} C \\ - \text{cont} \end{array} \right] \rightarrow \phi / l \text{ --- } \left\{ \begin{array}{l} C \\ \# \end{array} \right\}$

4) 김진우 : Some phonological Rules in Korea, 「語文研究」, 제5호, 충남대학교 語文研究會, pp. 162-163.

5) 김영기 :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탐출판사, 1974, pp.133-144.

6) 이혜숙 : 「한국어의 접받침」, 「언어」 5-2, 한국언어학회, 1980, pp.9-14.

② $C \rightarrow \phi / [-cont] \text{ --- } \left\{ \begin{array}{c} C \\ \# \end{array} \right\}$

③ $C \rightarrow \phi \% [+nasal] / \text{ --- } \left\{ \begin{array}{c} C \\ \# \end{array} \right\}$

규칙의 수는 네 개이지만 종류는 세 가지로 김 진우와 김 영기 교수는 모두 規則의 順位를 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칙은 적용 순서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中和現象을 說明하고 있는 규칙들은 상호 그 문제점을 內在하고 있지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本稿에서는 위와 같은 先行研究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그 現象에 나타난 共通的인 內容을 살피면서 濟州島가 갖는 中和現象의 特徵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I

中和(Neutralization)란 辨別的으로 機能하는 두 개 이상의 音素가 어느 위치에서는 辨別的機能을 喪失하는 音韻現象을 말한다.

現代國語에서도 /p/, /p^h/, /p'/와 /t/, /t^h/, /t'/, /č/, /č^h/, /č'/, /s/, /s'/, /h/와 /k/, /k^h/, /k'/는 단어 경계(word Boundary) 앞이나 자음으로 시작된 음절 앞에서 또는 음절말로 끝날 때 그 辨別力을 喪失하여 /p'/, /t'/, /k'/로 나타난다.

이같은 現象은 國語의 必然的 音韻變動現象이라 할 수 있거니와 後行하는 子音과의 同化에 先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中和된 이들 /p'/, /t'/, /k'/는 後行하는 子音과의 적절한 자음 동화를 겪어서 表面構造의 音聲形으로 實現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語幹末音이 中和된 狀態로는 그 基底形이 分明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母音으로 시작된 조사의 연결이나, 用言의 語尾를 연결하여 語幹末音의 基底形으로 設定해야 한다.

이 地域語에서 體言語幹末에서 音節末 장애음[+obs]의 中和는 他地域語와 같이 單一語는 勿論 派生語, 合成語에서도 強烈하게 生成되고 있음을 (1)의 例에서 볼 수 있다.

- | | |
|---------------------------|-----------------------|
| (1). a. [ipɾ] (엿) | [ipɾka lli] (엿구리) |
| [s'ep'] (설) | [č'ip'] (질) |
| [ips'e gi] (엿) | [təpk'e, tək'ke] (엿개) |
| [č'ip' muɾ, č'ikmuɾ] (질뭇) | [jpp' c'il] (엿길) |
| [pat' t'il] (밭일) | [pat' t'imča] (밭임자) |
| b. [sot' p'at'] (솔밭) | [čət' k'agi] (결가지) |
| [pet'] (벌) | [mit' padak'] (밀) |
| [ppt'] (팔) | [k'it' keŋi] (끝) |

[ko]aŋ, k'ot'] (꽃)	[sut'] (숯)
[nɔt'] (낮)	[p'it'] (빛)
[tot'] (뚝)	[jut'] (웃)
[k'ot' p'a t'] (꽃밭)	[k'ot' p'p'rim] (꽃바람)
[sut' t'emi] (숯더미)	[tat' č'u] (땃줄)
[nit' c'p'm] (눛잠)	[p'it'] (빛)
[jɔpɔt'] (여섯)	[jut'] (이웃)
[kɪit'] (그릇)	[ot'] (웃)
[čət' s'we] (젓소)	[ot' k'psim] (웃감)
	[mət' č'egi] (엇장이)
[kwit' p'awi] (꿏가)	[het' p'it'] (햇볏)
[čənči, puək'] (부엌)	[uŋjək'] (웃녁)
c. [čəŋjak'] (저녁)	[toŋjək' č'ip'] (동녁집)
[səŋjək' č'ip'] (서녁집)	

이같은 中和現象의 原因은 音節末子音 특히 장애음들이 單語境界나 子音 앞에서 未破된 결과로 이루어진 現象임을 알 수 있다.(內破現象)

體言語幹末의 경우 장애음의 中和를 規則化하면 다음과 같다.

$$(2). \left[\begin{array}{l} [+ \text{obst}] \\ \langle + \text{cor} \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 \text{cont} \\ - \text{strid} \\ - \text{tense} \\ \langle + \text{ant} \rangle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l} [+ \text{cons}] \\ \# \end{array} \right\}$$

즉 자음성을 가진 장애음은 語末이나 子音性的의 音素 앞에서 폐쇄음의 평음으로 바뀐다.

用言語幹末音의 경우에는 體言語幹末의 경우와 같이 그 中和現象이 거의 例外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다음의 例에서 알 수 있다.

(3). [təp ^h i da, tək'it'a] (엎다)	[əp ^h uda] (엎다)
[kɔt ^h ida, kɔt'ida] (갈다)	[jɔt ^h ida, jəp ^h ida] (알다)
[sik'ida] (싣다)	[tək'ida] (닫다)
[mek' k'ida] (말기다)	[hit ^h ida] (홀다)
[chit' t'a] (찢다)	[čət' t'a, čəčita] (찢다)
[kɔt' č ^h uda] (갓추다)	[kat' t'a, kɔt' t'a] (갓다)
[nit' č ^h uda] (눛추다)	[nɔt' sɔlda] (낮설다)
[nɔt ^h uda] (낮추다)	[mɔt' t'a] (멏다)

[pit' čida] (빚지다)	[č'wik'ida] (쫓기다)
[ek' kuft'a] (애꿎다)	[npt' ik' t'a] (낮익다)
[tat' k'amt'a] (맞감다)	[pet' k'ida] (벗기다)
[ičət' həda] (의젓하다)	[pant' it' həda] (반듯하다)
[mat' it' t'a] (맛없다)	[həpat' t'a] (헐벗다)
[sək'+da] (섞다)	[nak'+da] (늪다)
[tak'+da] (뒹다)	[pit' t'a] (빚다)

(3)에서 보듯 終聲으로 쓰인 單子音이 다음 자음과 연결될 때 中和現象을 일으키는 경우와 음절을 伸張하여 中和를 벗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어간말음이 받침으로 끝난 용언 268개를 조사한 결과 음절 신장이 일어나는 용언의 수는 65개, 음절 신장이 일어나지 않는 용언의 수는 169개, 음절 신장이 일어나는 형태와 일어나지 않는 형태를 모두 갖춘 쌍형을 갖는 용언의 수는 34개로 나타나고 있다.⁷⁾

또 음절 신장의 가부에 따른 音素를 대별해 보면 음절 신장을 가능하게 하는 音素는 어간 말음의 자음이 /č^h/, /k^h/, /t^h/, /p^h/등 有氣音系列이 많았다.

現代 국어에서 위에 提示한 7개의 音素外에 /t'/는 아랫 자음이 /s/일 때 語中에서 /s/로 바뀌어 音節末終聲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음성 표시를 하고 있다.⁸⁾

- (4). 못사람: [mus - salam]
 믿습니다: [mis - s+mnita]
 있소: [is - s'o]

濟州島에서는 다음과 같다.

- (5). [is s'uda] (있다)
 [čos s'uda] (좋다)
 [mas s'it' t'a] (맛있다)
 [nwas s'uda] (놓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이 地域語에서는 폐음화 규칙에 의해 生成된 音素 /t'/는 다음 音素 /s/ /音과 연결될 때 t'-동화규칙에 의해 /s/音으로 나타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 때의 /s' /音은 국어의 硬音 /s'/라기 보다는 /s'/보다 약화된 그러나 /s'/보다는 강한 音의 성질을

7) 조사한 268개의 어휘는 지면 관계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8) 허웅, op. cit. pp.211-212.

떠고 있다.

위에 나타난 예의 표면 구조의 도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6).	/ is' + suda /	/ čoh + suda /	— 기저 음운 표시
	i t suda	čot suda	자음 中和 규칙
	i t' suda	čot' suda	폐음화 규칙
	i t' s'uda	čot' s'uda	경음화 규칙
	i s s'uda	čos s'uda	t' 동화 규칙
	[i s s'uda]	[čos s'uda]	— 음성 표시

語幹末音節이 /h/로 끝날 경우 이 地域語에서는 다음의 예에서 두 가지 現象을 볼 수 있다.

- (7). a. 꺼멍다 : 꺼멍하다 / 꺼멍허우다.
 새까망다 : 새까망하다 / 새까망허우다.
 새빨강다 : 새빨강하다 / 새빨강허우다.
 누렁다 : 누렁하다 / 누렁허우다.
 가느다랗다 : 가느다랑하다 / 가느다랑허우다.
 노랑다 : 노랑하다 / 노랑허우다.
 동그랑다 : 동그랑하다 / 동그랑허우다.
 말갛다 : 말갛하다 / 말갛허우다.
 멀겁다 : 멀겁하다 / 멀겁허우다.
 보얗다 : 보얗하다 / 보얗허우다.
 부엌다 : 부엌하다 / 부엌허우다.
 파랗다 : 파랗하다 / 파랗허우다.
 하얗다 : 하얗하다 / 하얗허우다.
 회엷다 : 회엷하다 / 회엷허우다.
- b. 종다 : 조타.
 놓다 : 노타.
 뺨다 : 뺨타. 뺨따. 뺨스다.
 종고 : 조코
- c. 종+수다 : 좃수다. 조암수다.
 빨겁+수다 : 빨겁수다
 누렁+수다 : 누렁수다.
 뺨+수다 : 뺨수다. 뺨삼수다.
 종+네 : 존네. 조은게

一般的으로 /h/는 그 뒤에 /p/, /t/, /k/, /č/ 등 氣息音을 만들 수 있는 자음이 올 때 /p^h/, /t^h/, /k^h/, /č^h/로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現象보다 음절을 신장시켜 <ㅎ>를 첨

가시킨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h/ 뒤에 有氣音을 만들 수 없는 音素가 올 경우 (7)에서 보듯 두 가지 現象을 볼 수 있다. 즉 /h/→/t/로 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ㅎ>를 삽입시켜 음절을 신장시키는 경우다.

또 “중네”가 一般的 變동과는 다르게 “그거 잘도 조은게”에서 보듯이 음절을 신장시키고 있다. (“중네”는 잘 사용하지 않음) 또 “꺼멍수다”가 “꺼먼수다>꺼먼쑤다>꺼멧쑤다”의 도출에 의한 표면 음성도 사용되고 있으나 /h/末音의 경우 “꺼멍 허우다”가 그 사용 빈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이 지역어의 특색이라고 하겠다.

또 中世國語에서는 /s/ 末音으로 나타난 의문대명사 <무엇>과 不完全名詞 <것>이 이 지역어에서는 末音 /s/가 삭제된 形態로 사용되고 있다.

(예) 무엇이 : 머이우짱, 뒱우짜.

무엇을 : 뒱 가짱 감시냐?

뒱 가짱 감수짜?

무싱거 먹엄시냐?

것 : 사는 게(거) 아니여. (사는 것이 아니다)

늑물 가튼 거곡. (채소 같은 것이고)

굳허던 거곡. (굳하던 것이고)

굳해난 거라. (굳했던 것이다)

이 地域語에서는 有氣音이 명사의 말음으로 오는 것을 꺼려하여 /k^h/, /p^h/로 끝나는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된 語尾와 연결될 때에는 대부분 /k/, /p/를 末音으로 하는 명사로 바뀐다.

(8). [č'bi] (짚이)	[č'bi] (짚을)
[mur+bi] (무릎이)	[mur+bi] (무릎을)
[mur+biro] (무릎으로)	[mur+be] (무릎에)
[səbi] (앞이)	[səbi] (앞을)
[səb+ro] (앞으로)	[səbe] (앞에)
[ap ^h i] (앞이)	[ap ^h i] (앞을)
[ap ^h +ro] (앞으로)	[ap ^h e] (앞에)
[puəgi, čəŋgi] (부엌이)	[puəgeda] (부엌에다)
[puəgi] (부엌을)	[k ^h i+gi] (키육이)

他地域語의 경우⁹⁾ 연결되는 母音語尾에 따라 그 語幹末子音이 다르게 實現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이 地域語에서는 中部方言과 南部方言과는 달리 母音으로 시작된 曲用語尾의 범주

9) 최태영 : 「方言音韻論」, 螢雪出版社, 1983, p. 38.

속에서도 거의 同一한 音韻規則의 적용을 보이고 있다. 즉 主格形態 /-i/, 對格形態 /-i+/, 處格形態 /-e/가 연결되더라도 同一한 音韻現象 結果를 보여 주고 있다.

特記할 것은 |앞|이란 어휘가 모음으로 시작된 구속형태소와 연결될 때는 [ap^hiro]로 표출되어, 語幹再構造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15c 形態의 |앞|을 기저형에 內包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인 듯하다.

舌頂的資質(+coronal)을 가진 폐쇄음이나 파찰음을 末音으로 가지고 있는 명사들은 그 말음 /t/, /t^h/, /č/, /č^h/이 모음으로 시작된 曲用語尾와 연결될 때 제 음가로 발음 되지 않고 /s/로 交替되는 現象을 강렬히 나타내고 있다.

- | | | |
|-------|----------------------------|--------------------------|
| (9). | [paši] (발이) | [pas+i] (발을) |
| | [pastro] (발으로) | [pat'i] (발에) |
| | [soši] (솔이) | [sos+i] (솔을) |
| | [sot'i] (솔에) | [sosi+ro] (솔으로) |
| | [ppši] (팔이) | [pps+ro] (팔으로) |
| | [ppse] (팔에) | [pps+i] (팔을) |
| | [čpk'pši] (걸이) | [čpk'ps+i] (걸을) |
| | [čpk'ps+ro] (걸으로) | [čpk'pt'i] (걸에) |
| | [miši] (밀이) | [mis+ro] (밀으로) |
| | [mise] (밀에) | [mis+i] (밀을) |
| (10). | [nači] (낮이) | [nač+i] (낮을) |
| | [nače] (낮에) | [češi] (젓이) |
| | [česi+ro] (젓으로) | [češ+i] (젓을) |
| | [čese] (젓에) | [piši] (빛이) |
| | [pis+i] (빛을) | [pis+ro] (빛으로) |
| (11) | [npsi] (낮이) | [nps+i] (낮을) |
| | [nps+ro] (낮으로) | [npse] (낮에) |
| | [k'oši, kočani] (꽃이) | [k'osi+i, kočani+i] (꽃을) |
| | [k'oš+ro, kočani+ro] (꽃으로) | [k'ose, kočane] (꽃에) |
| (12) | [čiši] (치웃이) | [tiğiši] (디근이) |
| | [č ^h iši] (치웃이) | [hiğiši] (하웅이) |

“숫, 돛, 빛, 웃, 닳”도 동일한 語形變化를 生成하고 있다. 이 地域語에서는 名詞의 末音이 [+cor]일 때 그 名詞는 모음으로 시작된 曲用語尾와 연결될 때 제 음가로 발음되지 않고, /s/로만 나타나고 있어 이들 단어들은 /s/ 末音으로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通時的으로 보아 /t/ 末音을 가진 “벗(友), 뜬(意)”은 他方言과 같이 이 지역어에서도 同一하게 “벗”, “뜻”으로 實現되고 있다.

이같은 現象은 中和規則과 相反되는 것으로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¹⁰⁾

첫째 “ㄷ”으로 語幹末音을 삼는 體言은 국어에서 찾기 어렵다는 形態素 構造規則의 사실과 둘째 現代 이전의 어느 時期까지 자음 앞에서조차 “ㄷ”과 “ㅅ”이 각각 示差的이었고 그리하여 처음 계열은 “ㅅ”으로 설음 계열은 “ㄷ”으로 자음 앞에서 中和作用을 보였던 역사적 사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처음 계열과 설음 계열이라는 음운론적 차이가 자질 변경에 의하여 현대 국어에서는 자음 체계의 下位體系(처음 계열과 구개음 계열) 등에 새로운 차이로 변화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질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운 현상에서는 이전의 규칙이 관여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어의 特異한 현상으로 體言의 어간말 /tʰ/가 처소격 /-e/나, /-e/에 기저를 둔 /-i/와 연결될 때는 처격 {-디}와 연결되어 {-띠}로 나타나고 있다.

13. 바며간다.(밭에 간다)

바며로 오라. (밭으로 오라)

즈끼띠(결에), 소띠(솔에)

그 나머지는 語幹再構造의 機能을 나타내어 <픈세>, <미세> 등으로 표출된다.

또 他方言과는 달리 <낮>이 모음어미와 曲用할 때는 /ʌ/으로 바뀌지 않고 /ɤ/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제주도에선 낮) “느시, 느슬, 느스로, 느세”로 표출하고 있다. 이는 흥미 있는 사실로 “낮, 낮, 낮”의 意味辨別을 위한 意味論的觀點이 介在된 現象이 아닐까 한다.

(12)에서 보듯 이 地域語 역시 한글 字母 명칭에서 그 文字表記와 관계 없이 /s/로 표출되어 語幹末音 /h/나 /t/도 /s/로 화함을 볼 수 있다.

體言語幹末音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음운 現象은 用言의 語幹末子音 活用時에는 아래와 같이 허용되고 있지는 않다.

(14)

	-아도	-아서	-이니까	-아라
꽃다	꼬자도	꼬 강	꼬지난	꼬지라
쫓다	조차도	조 창	조치난	조치라
낱다	나 도	낭	나 난	나 라
벨다	바가도	박 강	박그난	박그라
습다	소까도	소 강	소끄난	소끄라

이는 中和現象을 가장 강력히 일으킬 환경의 차이 즉 #에 비롯된 듯하다. 自立形態素로써 體言은 依存形態素인 用言과는 달리 그 어휘 형태를 재구조화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통시적 사실은 경계표지에 의한 음운론적인 조건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10) 李秉根: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탑출판사, 1981, p. 82.

李基文: 「國語 音韻史 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1972, p. 15.

- b. /lk/ : [h+k' , hɸk'] (흙)
 [tɸk] (닭) [k'adak'] (까닭)
 [c^hɸnh+k] (진흙) [c^hik' , k'+k'] (침)
 [tud+k'] (두둑)
 /lp/ : [jodɸɸ'] (여덟) [ɸɸɸ' k'i , ɸɸɸ' c'i] (팔기)

<用言의 경우>

07. a. /ps/ : [i'tt'a , ə'tt'a] (없다)
 [i:sə , ə:sə] (없어)
 [i:sin , ə:sin] (없는데)
 /ks/ : [sək'+ida , sət^hida] (섞다)
 /nč/ : [ačida , ačt'a] (앉다)
 [ača] (앉아)
 [iɸčida] (없다)
 [naat' ta] (나와 앉다)
 /lt^h/ : [halt^hida , hall+ida] (활다)
 [hult^hida] (훈다)
 [hit^hida] (훈다)
 b. /lk/ : [ɸɸk' t'a , ɸɸlgida] (밝다)
 [mɸk' t'a , mɸlgida] (맑다)
 [huk' t'a] (굵다)
 [ik' t'a] (익다)
 [n+k' t'a] (늑다)
 /lm/ : [čəmt'a] (젊다) [weɸgida] (움기다)
 [tam k'o] (담고) [kumčida] (굶다)
 [somč'i] (삼지) [kumk'i] (긱기)
 /lp/ : [ɸɸɸ' t'a , ɸɸll+ida] (팔다)
 [č^holap' t'a , c'olap' ta] (뺏다)
 [nəbi] (넙이)
 [edɸlt'a] (애닭다) [jall+ida] (얕다)
 [čpr+ida] (쪼다)
 /lp^h/ : [iɸp^hida] (읍다)
 c. /lh/ : [k'+llida] (끓다) [t'ɸlluda] (뚫다)
 [kɸll+ida] (끓다) [oll+ida] (움다)
 [šilp^hida] (싫다) [taida] (닿다)
 /nh/ : [k'+nida , k+c^hida , k+c^hida] (끓다)

위에서 보듯 語幹末音 /ps/는 體言의 경우 /p/로 단순화 하지만 <없다>의 경우 그 기저형은 <웃다, 엇다>의 형태로써 나타나고 있다. /ks/의 경우 體言일 때 /k/로 단순화하고 있으

며 <섰다>는 <서끄다, 서트다>로 음절 신장을 보여 주고 있다. /nč/의 경우 음절 신장이나 /č/으로 나타나고 있다. /ls/의 경우 <돋>이 <돋>으로 (ex. 돋 돌아 왓찌), <곶>은 <곶>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具體化하면 다음과 같다.

16-a)에서 보듯 形態音素論의 構成되는 음절말 자음군 中에서 체언의 경우 /ps/, /ks/, /ls/ 등에서 보듯이 뒷자음이 [+cor]이면 뒷자음이 탈락하고 있다. 用言의 경우 /nč/ 또한 뒷자음이 탈락하고 있다. 그러나 용언에선 대부분의 어휘가 <으> 모음을 介在시켜 음절 신장을 보이고 있다.

16-b), 17-b)에서 보면 /lk/의 경우 體言과 用言을 막론하고 /k/로 단순화 되고 있으며, /lm/도 /m/로 /lp/도 體言의 경우 /p/로 용언의 경우 <애답다>를 제외한 경우 거의가 /p/로 단순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자음군 中에서 뒷자음이 [-cor]이면 體言과 용언의 경우 앞자음이 탈락하고 있음을 본다.

自然音韻論¹²⁾에서는 자음이 겹칠 경우 좀더 자음다운 자음이 남고 자음성이 약한 자음이 탈락한다고 하여 가장 자음다운 자음은 파열음이고 그 다음이 마찰음, 파찰음 순이며 비음과 유음은 모음에 가까운 즉 자음성이 약한 음이라 말하고 있다.

17-c)에서는 /lh/의 경우 <끓다>가 <끓리다>, <끓다>가 <끓루다>에서 보듯 대부분의 어휘가 음절 신장을 나타내면서 /h/가 脫落되고 있음을 본다.

16)과 17)의 a와 b에 共通된 음운 현상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18. \left[\begin{array}{c} C \\ +cor \end{array} \right] \rightarrow \phi / [+cons] \text{ --- } \left\{ \begin{array}{c} \# \\ C \end{array} \right\}$$

특히 용언의 경우 語幹末子音群의 어휘가 대부분 음절 신장을 보이고 있다. 16)과 17)에서 보인 語幹末 자음군의 음절 신장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9. <리> ړ다: 갈그다. ړ다: ړ그다.
 ړ다: ړ그다. ړ다: ړ그다.
 <래> ړ다: ړ르다. ړ르다. ړ다: ړ다. ړ르다.
 ړ다: ړ루다. ړ다: ړ부다.
 ړ다: ړ르다.
 <려> ړ다: ړ르다. ړ다: ړ러부다.
 ړ다: ړ이다. ړ다: ړ리다.
 ړ다: ړ루다. ړ다: ړ루다.
 ړ다: ړ루다. ړ다: ړ르다.
 <려> ړ다: ړ르다. ړ다: ړ루다.
 ړ다: ړ르다. ړ다: ړ루다.

12) S. A. Schane: Generative phonology ·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1976. p.111.

김영기는 자음군 단순화 규칙을 [+cont] 資質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 ㅅ > 앓다 : 아지다. 앓다. 안지다.
 앓다 : ㅅ지다.
 < ㅈ > 읊다 : 읊프다.
 < ㅊ > 섰다 : 서끄다. 서트다.
 < ㅊ > 많다 : 만ㅎ다.
 < ㅊ > 할다 : 할트다. 할르다. 훑다 : 훑트다.
 훑다 : 흐트다.

語幹末子音群은 體言의 경우 모음어미 앞에서조차 子音語尾의 앞에서처럼 하나의 자음을 탈락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中部方言에서 /lk/를 末音으로 가지는 명사 “훑, 닭, 칩” 등은 이 지역어에서는 /l/이 탈락된 /k/만을 가지는 形態素로 再構造化되고 있다.

- | | |
|----------------------|-------------------------------|
| ㉠. [higi, hagi] (훑이) | [hɨgɨl, hægɨl] (훑을) |
| [hɨge, hæge] (훑에) | [hɨgiro, hægiro] (훑으로) |
| [tɨgi] (닭이) | [tɨk' t'o] (닭도) |
| [čhigi, k'igi] (칩이) | [čhɨk' k'wa, k'ik' k'wa] (칩과) |
| [tudiɨge] (두툼에) | [k'adagi] (까닭이) |

이들 /lk/의 子音群은 用言에서도 單子音으로 단순화하는 傾向이 강하며 위의 名詞들의 예에서 보듯이 형태음소적 층위까지도 단자음으로 再構造化하고 있음을 본다.

이와 같은 현상은 /lp/, /ps/, /ks/에서도 볼 수 있다.

- | | |
|----------------------|-------------------------|
| ㉡. [jɨdɨbičɨ] (여덟이지) | [jɨdɨbirado] (여덟이라도) |
| [jɨdɨbi] (여덟이) | [nəbi] (넓이) |
| [k'abi] (값이) | [k'abɨl] (값을) |
| [k'abɨro] (값으로) | [k'abe] (값에) |
| [nəgi] (넋이) | [nəgiro] (넋으로) |
| [mogi, naši] (몫이) | [mogiro, naširo] (몫으로) |
| [moge, nase] (몫에) | [mɨk' t'o, našido] (몫도) |

中部方言에서는 /lk/, /lp/등의 음절말 자음군은 話者에 따라서 [ilk'o], [nəlp'k'o] 등과 같이 두개의 음소를 다 발음하는 것도 볼 수 있으나, 이 지역어에서는 單子音으로 간소화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여 /lk/는 /k/로, /lp/는 /p/로, /ps/는 /p/로, /ks/는 /k/로 化하여 單子音으로 再構造化하였다.

이러한 例들의 양상으로 보아 濟州地域語에서도 비교적 자음군을 피하려는 현상이 농후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¹³⁾

13) 이병근, op. cit., p.178.

22. C→ϕ / [+ cons] — + VX] noun ending

用言의 경우 다른 地域語에서는 이런 수의적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 지역어에서는 用言語幹의 末音이 子音群으로 끝날 경우 모음어미와 연결될 때조차 수의적으로 실현됨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 | | |
|----------------------|-------------------------------|
| 23. [nəritn] (넓은) | [nəritniri] (넓은들) |
| [ača] (앉아) | [illobtn] (앉은) |
| [isə, əsə] (없어) | [iši, əši] (없어) |
| [isəsə, əsəsə] (없어서) | [isəčinitn, əsəčinitn] (없어지는) |

이같은 現象은 他方言에서 찾아 보기 힘든 特異한 活用임에 틀림없다. 體言, 用言 屈折에서의 이러한 現象은 句形複合語(phrasal compound noun)에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본다.

- | | |
|--|------------------|
| 24. [təgi, təgin, tək'to] (닭이, 닭은, 닭도) | |
| [tək'č'əp, tək'məp] (닭장) | |
| [tək't'əi] (닭털) | [tək'təri] (닭다리) |
| [tək't'əp] (닭똥) | [təkulim] (닭울음) |

이같은 現象은 體言語幹 굴절에서의 音韻規則이 用言의 活用, 複合, 또는 派生の 規則에까지一括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 변화가 발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이 지역어가 他方言群에서보다 비교적 자음군을 기피하는 현상이 농후한 것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地域語의 語幹末子音群의 또 하나의 特徵은 육지어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어휘가 音節을 伸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現象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¹⁴⁾

이 지역어를 用言語幹末子音群과 用言語幹末單子音으로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語幹末이 單子音으로 끝난 예>

- | | |
|----------------------|---------------|
| 25. a. 실다: 시끄다, 실르다. | 갈다: ㄱ트다. |
| 걸다(捲): 거드다. | 말다: 마트다. |
| 쏟다: 소드다. | 발다: 바끄다. |
| 닫다: 더끄다. | 알다: 야프다. ㅛ트다. |

14) 金洪植: "用言의 末音母音에 대하여", 「論文集」 9集, 濟州大學校, 1977, pp. 35~52.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層位學的 考察", 「池憲業先生 華甲記念論叢」, 1971, pp. 838~840.

두 論文은 어간말 모음을 근원적 어으로 보고 15C-16C의 古形이 아직도 殘存하였을 것이라고 봄.

붙다 : 부뜨다. 부트다.	홀다 : 흐뜨다.
벨다 : 바끄다. 바트다.	
b. 깊다 : 지뜨다.	높다 : 노뜨다.
딛다 : 더뜨다. 더끄다.	값다 : 가뜨다.
질다(仗) : 지뜨다.	엷다 : 어뜨다.
깊다(溷) : 지뜨다.	
c. 깎다 : 까끄다.	꺾다 : 거끄다.
뉘다 : 나끄다.	뒹다 : 다끄다.
뉘다 : 무끄다.	볶다 : 보끄다.
섞다 : 서끄다. 서트다.	쉴다 : 스끄다.
엮다 : 여끄다.	꺾다 : 저끄다.
d. 낫다 : 나스다.	앗다(奪) : 아스다.
잇다 : 이스다.	있다 : 이시다. 시다.
짓다(造) : 지스다.	붓다 : 부스다.
꿇다 : 꼬주다.	
e. 갖다 : 가지다.	짓다 : 지꾸다. 주끄다.
잇다 : 이치다. 이치다.	쫓다 : 조치다.
(술을) 빚다 : 비지다.	젓다 : 저지다.
낫다 : 느줍다. 느잡다.	찢다 : 찢지다.
뺨다 : 뺨스다.	

국어의 一般의 現象으로 用言의 活用語尾 가운데 [-ix] verb ending들은 모음 혹은 유음 즉 [+voc] 뒤에서는 그 /i/를 脫落시키는 규칙을 볼 수 있다.¹⁵⁾

$$i \rightarrow \phi / [+voc] + [- x]$$

이로 말미암아 표면형에서 대표적인 두 異形態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지역어에서도 (25)에서 보듯이 語幹末子音 /p^h/, /t/, /t^h/, /s/, /k'/, /k/, /t̚/, /t̚^h/, /h/ 등은 음절을 신장시키고 있음을 본다. 즉 이 지역어에서는 하나의 樣態를 가지고 있는 “-다, -고, -지” 등의 어미도 “-으시-, -으면-, -으라고-, -으리라” 등의 두 개의 樣態를 가진 語尾들에 類推되어 /i/를 보탠 어미들을 요청하여 음운신장을 하고 있다.

이들에 접미된 語尾들의 유형은 /i/, /u/, /i/ 등이거나 거의가 /i/로써 음절을 신장시키고 있음을 본다. 스, 츠이 어간 말음절의 자음으로 올 때는 /i/와 연결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 /i/는 /i/가 先行 硬口蓋音 스, 츠으로 말미암아 硬口蓋 前舌母音인 /i/로 변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같은 유추 현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음절신장을 일으키는 어휘가 거의 一音節語라는 점이다. 이는 一音節語의 語幹末子音이 자음으로 끝날 때 活用時 음운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간

15) 李秉根, op. cit., p.83.

을 고정화 시키고자 하는 心理的欲求와 二音節 母音語幹으로 되게 함으로 청각영상을 강조하여 意味傳達의 明確性을 갖게 하는 努力 절감의 音韻論的要因도 內在해 있을 것이다.

語幹末子音이 [+sonorant]일 때도 육지어에 비해 特異한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 一般的인 사실이지만 현대 국어에서 “안다 → *안으다, *안으고, *안으지”로 실현되지 않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 (26). [tɪrɪda, tɪllɪda] (들다:擧)
 [anɪda] (안다:抱)
 [sɪŋɪda] (심다)
 [k'sɪda] (끝다)
 [narɪda] (날다)

또 體言에 名詞形接尾辭 {-기}를 붙여 體言化할 때 또한 {-으-}가 나타나고 있다. 즉 “값기:값으기, 깎기:깎으기, 굶기:굶무기로 음절을 신장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어에서는 leveling condition에 속하는 이 유추적 變化는 아무런 수정을 받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면서 活用的 폭을 확대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語幹末에 子音群이 나타나는 경우도 대부분의 어휘가 음절을 신장하고 있음을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다.

- | | |
|------------------|--------------|
| (27). a. 값다:값그다. | 밝다:볼그다. |
| 깎다:몰그다. | 긋다:긋그다. |
| b. 째다:쯔르다. 조르다. | 넓다:널르다. |
| 밟다:볼르다. 볼브다. | 섞다:설루다. |
| 얹다:알르다. 알브다. | 뺨다:초랍다. 쪼랍다. |
| c. 삶다:실프다. | 얹다:일러불다. |
| 닭다:다이다. | 꿘다:끝라다. |
| 뚫다:뚫루다. | 꿘다:꿀루다. |
| 꿘다:꿀루다. | 웁다:울르다. |
| d. 삶다:솔므다. | 꿘다:꿀무다. |
| 꿘다:꿀무다. | 닭다:달무다. |
| e. 앳다:아지다. 안지다. | 엷다:으지다. |
| 웁다:울프다. | 섞다:서끄다. 서트다. |
| 많다:만하다. | 핥다:할르다. 할트다. |
| 훈다:훈트다. | |

(27)의 예는 그 음운 환경과 조건이 語幹末에 나타나는 單子音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 음절 신장을 기하고 있다. 이 또한 같은 要因의 作用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語幹末音이 變形을 유지하고 있음도 다음의 例에서 볼 수 있다.

- | | |
|--|---|
| <p>㉞. a. 실다 : 시끄다. 실르다.
 쉬다 : 서끄다. 서트다.
 잇다 : 이지다. 이치다.
 있다 : 이시다. 시다.
 밟다 : 불르다. 불브다.
 뺨다 : 초람다. 쏘람다.
 쉬다 : 서끄다. 서트다.</p> <p>b. 들다 : 들르다. 드르다.
 무르다 : 물르다. 무르다.
 가르다 : 갈르다. 가르다.
 다르다 : 달르다. 다르다.
 오르다 : 올르다. 오르다.</p> <p>c. 같다 : ㄱ뜨다. ㄱ뜨다.
 벨다 : 바끄다. 바트다.
 덮다 : 더끄다. 더뜨다.</p> | <p>붙다 : 부뜨다. 부트다.
 짓다 : 지꾸다. 주끄다.
 낫다 : 늑줍다. 늑잡다.
 넓다 : 널르다. 넓다.
 앓다 : 알르다. 알브다.
 앉다 : 아지다. 안지다.
 핥다 : 할르다. 할트다.
 부르다 : 불르다. 부르다.
 자르다 : 줄르다. 즈르다.
 나르다 : 날르다. 나르다.
 바르다(塗) : 볼르다. 브르다.</p> <p>두껍다 : 두껍다. 두텁다.
 어둡다 : 어둡다. 어둡다.
 얇다 : 야프다. 야트다.</p> |
|--|---|

위의 變形語들의 變化 양상 속에서¹⁶⁾ 語幹末音이 두 음으로 對立되어 “k:p”의 대응로 인해 파생된 어휘도 볼 수 있고 또 語幹末音이 갈라짐으로써 意味의 分化를 가져 온 경우 (더뜨다:覆, 더끄다:蓋)도 있음을 볼 수 있다.

V.

濟州地域語에 形成되어 온 中和現象에 대해 概괄적으로 考察하였다. 이제 前述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體言語幹末音의 경우 음절말 장애음 [+obst]의 中和는 單--語는 勿論 派生語, 複合語에서 강렬하게 生成된다. 장애음의 中和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left[\begin{array}{l} + \text{obst} \\ \langle + \text{cor} \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 \text{cont} \\ - \text{strid} \\ - \text{tense} \\ \langle + \text{ant} \rangle \end{array} \right] \text{ / } - \left\{ \begin{array}{l} [+ \text{cons}] \\ \# \end{array} \right\}$$

16) 李崇寧:「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 1985, pp. 24~25.

2) [+obst]로 끝난 用言語幹의 경우 음절 신장을 나타내는 수에 비해 中和를 나타내는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음절 신장을 나타내는 語幹末子音은 /c^h/, /k^h/, /t^h/, /p^h/ 등 유기음 계열이 많았다.

3) 이 지역어에서 어간 말음으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p/, /t/, /k/, /m/, /n/, /ŋ/이었으며 /t/는 /s/와 연결될 때 /s/音化하였다. 이 때 生成된 /s'/음은 육지어에 비해 약한 硬音이었다.

4) 用言語幹末子音群이 單語境界 앞이나 子音 앞이나 그것으로 끝날 때 뒷자음이 [+cor]이면 뒷자음이 탈락하고 있으며 [-cor]인 경우 앞 자음이 탈락하고 있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begin{matrix} C \\ +cor \end{matrix}] \rightarrow \phi / [+cons] \text{ --- } \{ \begin{matrix} \# \\ C \end{matrix} \}$$

그러나 용언에서 많은 어휘가 음절 신장을 하고 있음을 본다.

5) 語幹末子音群은 體言의 경우 母音語尾 앞에서도 하나의 자음을 脫落시켜 形態音素의 層位까지도 單子音으로 再構造化시키고 있다. 그 유형은 단자음으로 끝날 경우와 같은 양태를 보인다.

6) 語幹末子音群은 用言語幹에서 母音語尾와 연결될 때도 單子音으로 단순화한 현상을 볼 수 있으며 句形複合語일 경우도 이 單純化現象은 수의적으로 生成되고 있어 그 擴大的 幅을 넓히고 있다.

7) 用言語幹末子音 /p^h/, /t/, /t^h/, /s/, /k'/, /c/, /c^h/ 등이 {-대}, {-고}, {-지} 등과 연결될 때도 {-으시}, {-으면}, {-으리라}, {-으라고} 등의 語尾들이 類推되어 /i/, /u/, /i/를 어간에 덧붙여 음절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一音節 語幹末音을 二音節로 고정시켜 발음을 명확히 하여 청각영상을 강조하여서 의미전달의 명확성을 갖게 하는 노력 절감의 音韻論的 要因인 듯하다.

8) 用言語幹末子音이 [+sor]인 경우도 /-i/ 類推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육지어의 音韻變化보다 活用語尾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用言을 體言化시키는 {-기} 접미사를 붙일 때도 이 현상은 나타난다.

9) 用言語幹末子音이 子音群을 形成하고 있을 때 음절 신장은 대다수 실현되고 있다.

10) 동일한 어휘가 음절 신장과 음절을 신장시키지 않은 쌍형으로 표출되어, 음소의 대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意味의 分化를 가져 오기도 한다.

Summary

Neutralization in Chejudo Dialect.

Kim Kwang-woong

In the case of substantives, the neutralization of obstruents in syllabic ending is formed strongly with simple word, derived word, and compound word.

The rule is as follows:

$$[\begin{array}{c} + \text{obst} \\ \langle + \text{cor} \rangle \end{array}] \rightarrow \left[\begin{array}{c} - \text{cont} \\ - \text{strid} \\ - \text{tense} \\ \langle + \text{ant} \rangle \end{array} \right] / - \left\{ [+ \text{cons}] \right\} \#$$

In the case of declinable word, the neutralization of obstruents in syllabic ending shows syllabic enlargement with most words, and it is shown with few words.

The nouns ending with /k^h/, /p^h/ turn into /k/, /p/ when connected with vowel ending, and the nouns ending with /t/, /č/, /č^h/ turn into /s/ when such phonemes come before vowel ending.

In the case of consonant cluster of stem ending, the second consonant is deleted when the second consonant is [+cor], the first consonant is mostly deleted when the second consonant is [-cor].

But in the case of declinable words, syllables are enlarged with /i/ or /i/ intervened.

In the case of substantives ending with consonant cluster of stem ending, one consonant is deleted, and it is the same with compound words.

When the ending of declinable words is simple consonant or consonant cluster, most of such words show syllabic enlargement with affixes like /i/, /u/, /i/.

This phenomenon seems to effect clarity in pronunciation and meaning transmission with the emphasis on auditory image.